## 印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 구랍 26일 인도 현지서 3월 대웅전 완공 목표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추진 중인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핵심사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사업이 코로나19에도 순항 중이다. 조계종은 구랍 26일(현지시간) 부다가야 현지에서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한국 전통방식으로 열린 상량식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대신해 총도감인 부다팔라 스님이 상량문을 대독했으며 인근 주요사찰 주지 스님의 헌화 및 상량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향산 박철수 대목장을 비롯한 한국기술진과 인도 현지 건축관계자들도 함께해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원행 스님은 상량문에서 "한 사람의 원(願)이 모여 일만의 원(願)이 되고 그 원의 힘이 거듭 모여 대한불교조계종의 백만원력이 되었으니 이후 억조창생(億兆蒼生)의 희원(喜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마치 일적낙수(一適落水)가 연(連)하면서 큰 바위를 뚫어내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치사했다.

상량문에 따르면 분황사 불사는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청하(淸河)문도회와 본원(本願 :붓다빨라)이 2019년 2000평의 경내부지를 조계종단에 희사하고 2020년 설매(雪梅)·연취(蓮翠) 보살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기금으로 본격화됐다. 대웅전(80평)과 요사채(290평), 보건소(153평) 등 3개동 불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도정부와 비하르주정부, 현지 관계자들도 외호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2022년 분황사 완공 후에는 백만불자 천만불자가 순례와 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세계화의 터전이 될 것이니 이는 1700년 한국불교사의 대경사"라며 "한국전통양식의 분황사 신축법당에 백만원력의 대들보를 대중 정성을 모아 상량하니 불보살과 호법선신 그리고 동서남북 중앙의 토지신께서 이 도량을 영원히 가호해 달라"고 발원했다.

현재 분황사의 불사는 3월 대웅전 건축물 완공에 이어, 7월 숙소 및 보건소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 거세지는 종교편향 규탄… 승려대회에 역량 집중

### 포교사단 · 대불청 · 비구니회 등 민주당사 앞서 항의시위 이어가
### 전국 교구본사들도 움직임 나서
### 조계종, 승려대회 조직 구성 완료




불교폄훼 종교편향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 포교사단이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진행한 항의집회 모습.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지난해 불거진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불교계의 불편함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불교계가 대대적인 결집에 나섰다. 교구본사와 신행단체들은 불교폄훼를 자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기로 하고 정부의 불교왜곡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월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3차 정청래 의원의 종교폄훼, 불교왜곡 망언에 대한 항의집회' 를 개최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정청래 의원을 규탄했다. 서울 · 인천 · 경기 지단 임원 및 포교사단 전문위원 40여 명이 동참한 이번 집회에서 포교사단은 △정청래 의원의 즉각 출당 조치 △민주당의 전통문화 의식 각성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 등을 촉구했다. 포교사단은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매일 국회의사당 및 정청래 의원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인 시위는 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불교 청년불자들도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안현민)는 1월 6일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불교 폄훼, 종교 편향에 대해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스님과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대응하겠다"며 항의 서한문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조계종 제16대교구본사 고운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은 1월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방문해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 막말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갖고 종교 편향 중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고운사는 1월 21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현 정부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전국승려대회에 제16교구 본 · 말사 스님 전원이 참석한다는 방침이다.

비구니 스님들도 "현정부의 종교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구랍 29일, 민주당사를 찾아 '정부와 여당의 종교편향에 대한 전국비구니회 입장문' 을 전달하고 종교편향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전통문화보존위원장 김영배 의원 등에게 불교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해당 시각 당사 앞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합장한 채 침묵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비구니회는 변화가 있을 때 까지 당사 앞에서 침묵 법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국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은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 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종교편향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역량 결집에 나섰다.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1월 6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승려대회 봉행위원회 조직구성안을 확정했다.

봉행위원회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다. 자문위원은 원로회의 의장 및 원로의원, 명예원로,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도위원은 현직 대종사와 대종사급이 맡는다.

봉행위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중심으로 종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전국선원수자회 대표, 전국비구니회장이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이 밖에도 상임봉행위원, 봉행위원, 집행위원회, 사무처, 외호대중 등으로 구성됐다.

승려대회는 명고와 명종으로 시작해 고불문, 봉행사, 종정 진제 스님 유시, 대회연설, 결의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승려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명종을 전국 사찰에서 동시간대 함께 21차례 울림으로써 종교차별과 불교폄훼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불교계의 굳건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선조 500년 동안 버텨온 한국불교를 더 이상 폄훼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한다"며 "전 종도가 불교를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의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넘은 종단 비방 · 폄훼에 불자 행동 나서

### 상월결사 삼보순례단, 1월 6일 파사현정 걷기순례…20명동참
### 종정예하 모욕, 순례 '쇼'매도 해당매체 및 종무원 참회요구



상월선원 삼보순례단은 1월 6일 '파사헌정 걷기순례' 를 진행하고 종단을 비방한 이들의 참회를 요구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불교중흥 순례에 대한 '걷기쇼' 매도와 조계종 종정 예하에 대한 모욕에 불자들이 규탄행동에 나섰다.

상월결사 삼보순례단은 1월 6일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온라인 매체인 불교포커스가 위치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까지 4km구간에서 '파사현정 걷기순례' 를 진행했다. 순례에는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 등 순례 동참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걷기순례는 불교포커스와 일부 종무원의 종단 비방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불교중흥을 위해 수백km의 순례길을 걸은 이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종단과 종정 예하, 순례 비방에 대한 참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재식에서 발원문을 통해 "삼보사찰 순례를 마친 우리는 다시 도심 한복판에서 파사현정 순례를 떠난다. 순례를 비방하는 이들이 참회하는 그날까지, 종단과 종정 예하를 모욕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날까지 파사현정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보순례단은 이날 순례를 시작으로 매일 오후 3시마다 조계사부터 우리함께빌딩까지 걷기순례를 진행한다.

이번 사태는 종교편향과 불교폄훼로 분개하고 있는 불자들의 공분을 다시 한번 사고 있다.

통도사 사부대중도 1월 7일 조계종 종정 예하 모욕에 대해 백년대계본부와 불교포커스에 항의 방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불국사, 남산 마애불 세우는 불사에 1억원

### 1월 5일 종우 스님, 원행 스님에 천일기도 회향 맞아 기금 쾌척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가 총무원 36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백만원력결집불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에 힘을 보탰다.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중앙종회의원 성행 스님이 함께했다.

이번 기금은 1000일 기도 회향을 맞아 불국사 사부대중이 마련한 기금 중 일부다.

종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열암곡 부처님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총무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큰 불사금을 보시해 줘 고맙다"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꼭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쓰러져 있음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며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무게도 80톤에 달해 작업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곡산 대광사 2022년 신입생 모집

명상 상담 대학

▣ 접수기간 : 2021년 12월 ~ 2022년 2월 13일(일) 까지

▣ 강의내용 :

| 과 목 | 강의내용 |
|---|---|
| 불 교 | 불교개론, 사념처관법, 대승반양사상, 유식과명상, 천태소지관 |
| 명 상 | 위빠 사나(알아차림, 자기집중, 호흡) → 이론, 실기 병행 및 무념 치유(특강) |
| 상 담 |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 가족 행복상담, 대상별 상담 이론 및 실체 |

▣ 강의시간 : 기본과정 [야간] 매주(화) 19:00 ~ 22:00
심화과정 [야간] 매주(수) 19:00 ~ 22:00
전문과정 [야간] 매주(목) 19:00 ~ 22:00

▣ 수 료 후 특 전 : 명상 상담 지도자 1, 2급 자격증 부여
심화과정(2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2급 자격증 부여
전문과정(1년) 수료 후 명상상담 지도자1급 자격증 부여

▣ 특 강 : 매주(화) 테라피요가 명상

▣ 대 상 자 : 명상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은 누구나 가능

▣ 접수방법 : 대광사 종무소 방문 또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인터넷 입학 신청

▣ 문의전화 : 031)715-3000

▣ 수 강 료 : 한 학기당 170,000 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031-715-3000 / 3404